

통일 플러스

통일 스토리

남북공감

민주평통 365

즐거운 통일

쉽표, 느낌표

## 광복70주년 8.15 경축사의 의미



**통일 돋보기**  
광복 70년  
대한민국의 눈부신 변천사



**통일을 여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통일,  
젊은 세대가 준비해야



**통일 Talk**  
남북청년 함께 DMZ 걸으며  
통일생각 키워어요!

**포커스**

### 광복70주년 8.15 경축사의 의미

2015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금년은 종전과 함께 찾아온 해방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한국전쟁 발발 ...

[더보기](#)



**행복한 동행**  
엄마같은 마음으로  
함께할게요



**KBS 골든벨 결선**  
광복 70주년 역사통일골든벨,  
마침내 종을 울리다!



**역사통일 유적지 견학**  
독립운동가들의 뜻이  
통일 향한 꿈으로 이어지다



Today 남북  
여름철이 되면  
남한은 '물놀이', 북한은 '천렵'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북한 친구들과  
제기끼기 하던 때가 그리워요



8천만 통일의 노래  
'8천만 통일의 노래'  
MBC DMZ 평화콘서트서 공개



봉화 대축제  
'통일준비 한마음  
봉화 대축제' 열려



통일공공외교대사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  
세계로 뻗어가라



Nuac News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려



느낌 있는 여행  
별이 된 이름을 따라,  
강원도 영월



통일 웹툰  
전 세계 공연의 메카,  
통일한국 인사동



통일 레시피  
담백한 맛이 일품인  
한천냉채



이벤트 당선작  
17기 출범 축하  
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찰카, 통일공감  
(통일-북한관련 인증샷 보내기)



모바일 통일시대  
우리가 준비하는  
통일의 길







## 광복70주년 8.15 경축사의 의미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5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금년은 종전과 함께 찾아온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등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우리의 통일외교 환경은 녹록치 않다. 한반도 경색국면을 타개할 묘책은 마땅치 않아 보이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매우 유동적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소위 '지정학의 부활' 현상에 뒤이은 강대국 정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집권 하반기 구상과 함께 의미 있는 대북, 대일 메시지를 천명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 경축사 곳곳에서 “미래”와 “관계 개선”을 강조함으로써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경축사는 향후 우리정부의 진로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통일외교에 관련된 박 대통령의 경축사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감정을 자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통일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두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동시에 미래의 관계개선 비전을 내세웠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비판은 최소한으로 언급하면서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비전 등은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한 뒤 “북한도 동참해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김정은 체제를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자 의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대북·대일 관계를 강조한 데 대해 경축사 작성에 참여한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남에 따라 남은 시간 동안 대북·대일 관계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발표(8월 14일)

예상했던대로 아베 수상의 담화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진정성 없는 담화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제국주의로 나갔다는 내용을 ‘과거형’ 사과로 제3인칭 시점에서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다양한 반성, 사죄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생략했다. 또한 과거 담화의 의미를 희석하는 장황하고 복잡한 논리와 애매, 불명확한 화법으로 담화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확하게 표명했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의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피하려고 한 흔적이 담화 곳곳에서 드러났다.

담화 이후 미국 정부는 환영 입장과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한국과 중국은 정부 차원의 비판은 신중히 절제하는 가운데 향후 일본의 구체적인 행동 및 실천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대응하되, 북핵·경제·사회문화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과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혀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8월 16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 무슨 ‘8.15 경축사’라는 데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악담을 늘어놓아 만 사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지경으로 몰아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지금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이니, 철도와 도로 연결이니, ‘이산가족상봉’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기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대응하되, 북핵·경제·사회문화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과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혀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해방 70년을 맞는 한국은 과거 2차대전 종전, 해방, 6.25전쟁, 세계 최빈국 시절을 거쳐 OECD DAC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로 개도국을 돕는 선진국 원조국가들의 모임. 한국은 2009년 24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회원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국체와 자긍심을 지켜왔다. 국민적 단결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는 한민족의 특성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밑거름이다. 그러한 성취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국가적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국의 국가발전 여정을 되돌아보고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던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2의 건국, 새로운 한국 건설에 매진할 때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는 박근혜 정부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남아 있다. 향후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포용적 자세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가 당면한 앞으로의 70년 속에는 통일도 포함돼 있다. 남북한은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통일한국을 함께 건설해가는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바, 북한은 더 이상 고립과 위기조성 전략에 머물지 말고 국제사회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이뤄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비전에 이제는 평양이 화답할 차례다. 분단 70년이 단절과 대결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방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가 당면한 앞으로의 70년 속에는 통일도 포함돼 있다. 남북한은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통일한국을 함께 건설해가는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바, 북한은 더 이상 고립과 위기조성 전략에 머물지 말고 국제사회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이뤄가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비전에 이제는 평양이 화답할 차례다.



<사진제공 : 청와대,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그로부터 몇년 뒤 6.25전쟁을 거치면서 포화 가득한 폐허의 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군사력은 이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현대사 위에 새긴 경제, 생활, 군사안보분야의 위대한 기록들을 살펴 보았다.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 1인당 국민총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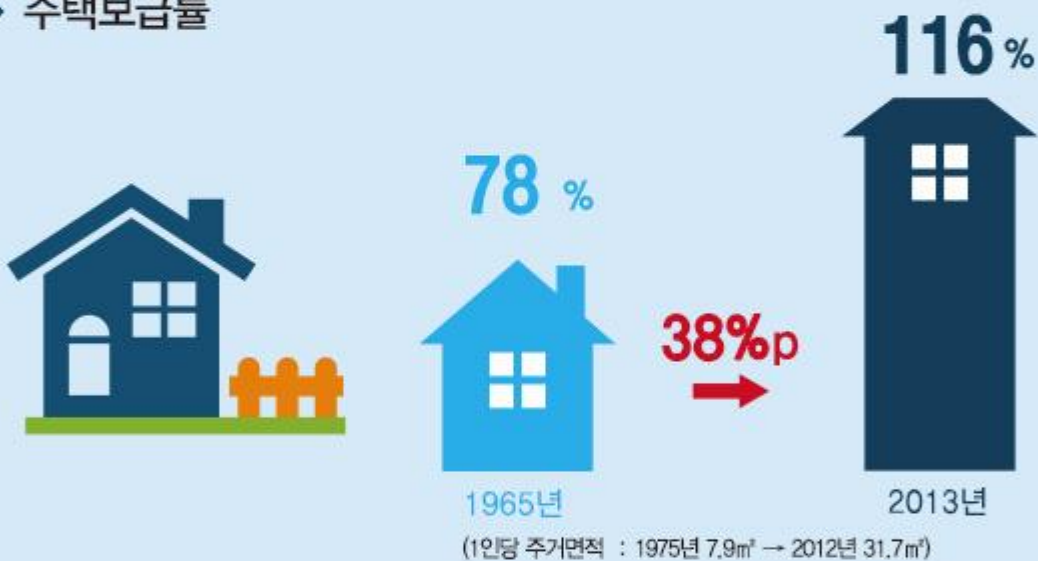


◆ 국내총생산(GDP)



편리하고 여유로운 생활

◆ 주택보급률



◆ 승용차 등록대수



# 튼튼한 안보 속 안전한 국민

## ◆ 국군 전체 병력



10만명



1950년

6.3배



63만여명



2014년 10월

## ◆ 육군 주요 군사력



전차

0대



1950년



2,400여대



2014년 10월



장갑차

27대



1950년

100배



2,700여대



2014년 10월

통계출처 : 통계청, 연합뉴스





30여 년 전 발간돼 1,700여만 부가 판매된 학습만화 '먼나라 이웃나라'는 연도 외우기에 급급하던 세계사 공부를 단박에 흥미진진하게 바꿔놓았다. 책 이름 그대로 먼 유럽조차 이웃나라로 느껴지게 했던 '마법의 책'이었다. 장구한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15권의 책에 담아 '고전'으로 만든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에게 독일의 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유학생에게 비친 통일 전 독일의 풍경은

이원복 총장은 '먼나라 이웃나라' 만화를 독일 유학 중인 1981년부터 어린이신문에 연재하기 시작, 무려 33년간 집필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정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많은 내용을 수정해야 했던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다. 집필 당시만 해도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얼마 안 있어 통일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 급변의 시기, 독일에서 대학을 다녔던 이원복 총장이 기억하는 독일의 풍경은 어떤 것일까?

이원복 총장은 독일이 분단되어 있던 1975년, 베를린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베를린에 가려면 동독 땅을 거치게 돼 있는데, 지정된 휴게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물 경우, 벌금도 많이 내야하고 자칫 잘못하면 간첩으로 오인받아 구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독 땅을 통과할 때 여관에 도장을 찍으면 공산국가에 들어갔다 왔다는 흔적이 남고, 남한에 귀국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도 다른 종이에 찍어줄 정도였죠."



베를린에 가려고 프랑크푸르트를 향해서 차를 몰았던 이원복 총장 일행은 프랑크푸르트 오데르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두 곳이 있다는 걸 모른 채 동독지역인 오데르로 잘 못 들어섰다 동독 경찰에게 붙잡혔다.

“다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동독 경찰은 나치를 연상시키는 녹색군복과 가죽잠바, 색안경, 가죽장화를 착용하고 있어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여기에 왔나기에 길을 잘못 왔다고 했더니 250마르크의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학생이고 집에 갈 기름마저 부족할 정도라고 하소연 했더니 씨익~ 웃으면서 가라고 보내주더라고요. 단, ‘동독 경찰이 서독 경찰보다 훨씬 친절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웃음)”



## 독일통일의 가장 큰 교훈, ‘민간교류부터 시작해야’

독일에서 10년의 유학생생활을 거친 터라 누구보다 독일의 통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원복 총장은 독일과 한반도의 여건을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

“내전이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독일은 1,500년 이상 기독교라는 공통된 종교를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고, 이들이 동서독 통일에 가고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통일된 종교가 없고 북한 역시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또한 주변국들의 입장 역시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했다. 미·영·불·소는 독일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폴란드의 경우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를 통해 마음을 들릴 수 있었다.

“폴란드는 독일 때문에서 지도에서 세 번이나 사라진 국가지만 빌리 브란트 수상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더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세요. 4대 열강 중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가 있나요? 게다가 북한 정권 역시 누구보다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통일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이뤄야 합니다.”



▲ 덕성여대에서 ‘총장님께 듣는 통일 이야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이원복 총장

이원복 총장은 독일 통일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나라는 북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TV 시청과 교류 등 동독의 실수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거란 얘기다. 하지만 의외로 독일은 우리 통일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봤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북한 내에 동독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결국 주역은 우리가 되어야 하며 꾸준한 지원과 민간교류를 확대해 우리가 한 민족임을 확인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88올림픽이 동구권 몰락에 기름 부어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로 동구권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게 바로 서울 88올림픽 때문이었다는 것. 물론 폴란드 자유노조에서부터 공산권이 와해되기 시작했고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개혁과 개방)를 들고 나왔을 때 이미 '불만의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찬 상태긴 했다. 이원복 총장은 그 풍선에 살짝 바늘을 댄 게 88올림픽이었다고 말했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해요. 올림픽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거지만 사는 줄 알았는데 TV를 통해 서울 거리를 보니까 ‘우리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구마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6개월 무렵부터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닫힌 세계에 정보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변화가 생긴다. 현재 북한에도 컴퓨터나 휴대폰, USB 등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가 북으로 간 상태. 이 정보들을 통해 많은 북한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게 될 경우 통일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북한주민과 탈북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체제가 다른 남한과 통일하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후 많은 동독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서독으로 갔다가 결국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더라도 우리끼리 사는 게 낫다’며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 역시 정서적 사회적으로 남한사회에서 걸도는 느낌을 받을 경우 나중에 사회에 대한 반감 내지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남한 정착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이 젊은 세대에 가져다줄 무한한 미래

이원복 총장은 올 봄 취임 후 숙명여대에서 '생활 속 북한 바로 알기', 덕성여대에서 '총장님께 듣는 통일 이야기'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젊은 세대의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면 모두가 낭패예요. 준비를 안하면 통일비용 등 제반 부담을 전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서독은 유럽에서 제일 부자나라였고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중 가장 잘 살았는데 둘이 합치자 휘청거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예요. 준비가 안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 이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통일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기에 준비하는 자세, 준비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대학생들에게 들려줬어요.”

이 총장은 통일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일단은 전쟁의 염려가 없는 궁극적인 평화가 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며, 시장이 확대되고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3포 혹은 5포 시대'에 눌러 좌절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총장이 청년이었을 땐 모두가 가난했고 모든 게 부족했지만 당시에는 블루오션이 많아 어느 한 분야에서 열심히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게 레드오션이라는 것. 하지만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레드오션에도 반드시 틈새시장이 있어요. 무엇보다 통일이 되면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죠.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감입니다. 늦거나 빠르거나 시기의 차이일 뿐 자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파고들다보면 뜻하는 바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 덕성여대〉



# 남북청년 함께 DMZ 걸으며 통일 희망 키워주세요!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걷는 동부전선 DMZ.

한낮 태양의 열기와 씨름하며, 때론 세차게 퍼붓는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대오를 맞춰 걷고 또 걸었다.

고된 여정을 함께 하는 동안 서로 많은 대화가 오고갔다. 오랜 편견의 벽이 낮아지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는 걸 느꼈다. 청년들의 공감의 힘이 되고, 그 힘은 머지않아 상처뿐이던  
이 DMZ에 평화의 새살을 돋게 할 것이다. 방학을 맞아 국토종주가 한창이었던 7월, (사)물망초의  
'제2회 대학생 동부전선 DMZ통일발걸음(이하 통일발걸음)'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통일이야기를  
나눴다.

## 8월 통일토크 참가자

**이성일(성균관대 경영학과 4학년)**

2005년 남한에 온 탈북대학생. 자동차학과를 졸업했지만 떡볶이 프랜차이즈 운영, 제철소  
근무, 군고구마 장사, 중소기업 근무 등 다양한 일을 하다 다시 학업에 정진 중.

**최종부(충북대 경영학부 4학년)**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라는 테마에 대해 공부하고 대외활동을 전개. 매달 전경련 경제관련  
토크행사를 열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에 칼럼을 게재하기도.

### 올리비에(물망초 간사)

프랑스8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다 북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짐. 북한인권관련 기관에서 인터뷰를 하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4년간 대기업 건설업체 근무. 다시 인권활동가로 변신.



### 이소현(한국관광대 관광경영과 졸업, 직장인)

군인이신 아버지 따라 최소 15번 이사한 덕분에 친구들이 전국구로 분포. 호텔 매니저보다 여군이 적성이라고 느껴 3군 사관학교 진학에 도전 중. 안보관광 관련 논문으로 집중받기도.

### 오영미(서강대 경영학과 2학년)

2009년 남한에 온 탈북대학생이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안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학교에 당당히 도전했다가 '발표' 잘하는 학생이 됨. 남북한 청년 봉사단 활동을 통해 열혈 봉사활동 전개.



## DMZ 통일발걸음 통해 더 가까워진 우리들

**오영미** ▶ 작년엔 엄홍길 산악대장님과 DMZ를 걸었는데, 좋은 경험이긴 했지만 남한 학생에 비해 북한 출신 청년들의 숫자가 적어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60명 중 거의 절반이 탈북학생이었죠.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생각에서 참가하게 됐고 실제로 '통일'이란 주제를 놓고 다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한다는 게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역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드린 일과 여학생 대표로 태극기를 게양했을 때예요. 북한에선 인공기 한 번 만져본 적 없는데, 태극기를 제 손으로 게양해보니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종부** ▶ 저는 '통일'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곧 서른이 된다는 생각에 국토종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50년 동안 민간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두타연 코스가 있었는데 이곳을 자전거로 달렸을 때는 너무 푸르고 아름다워서 선글라스를 쓰기가 아까울 정도였어요. 또 처음 가 본 고성 통일전망대 길이 너무 넓고 깨끗해서 의외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라요.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성일** ▶ DMZ종주 코스에서 2시간만 차로 달리면 고향에 갈 수 있는 거리여서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통일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각오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여학생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웃음을 잃지 않고 곳곳하게 따라와준 걸 보고 대단하단 생각도 들었어요. 통일로 가는 힘든 여정도 이처럼 참고 이겨낸다면 가까운 미래에 남북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소현** ▶ 여군이 되고 싶어 3군사관학교 시험준비를 했다가 합격하지 못하고 낙담해 있던 중 군사과 교수가 신 아빠와 친구의 권유로 참가했는데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대화를 나눴던 게 가장 특별했어요.

**올리비에** ▶ 스태프이긴 하지만 저도 30대 중반이니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종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꼭 해보고 싶던 태극기 기수도 해봤고 자전거 타기, 군부대 텐트 숙박 등 재미있는 경험이 많았어요. 하지만 휴대폰 사용으로 어머니가 붙잡혀가셨다는 한 탈북학생의 이야기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통일 또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죠.



##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탈북민을 더 많이 아는 계기가 됐어요

**최종부** ▶ 올리비에 형 이야기에 공감해요. 저도 북한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1인 피켓 시위도 했어요. 북한인권에 대해서라면 올리비에 형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올리비에** ▶ 저는 프랑스에서 학부 재학 중 TV에서 북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꽃제비들의 실상이 참혹했고 김일성 동상을 봤을 땐 국가가 마치 종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는데 북한 관련 책이 하나도 없는데다 북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겠다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몰입하게 됐고 직접 북한에 다녀와 논문을 써냈어요. 북한의 결혼식이나 제사, 무당 등 전통 문화에 대해서 연구했죠. 논문은 높은 점수를 받았고 덕분에 좋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저는 공부보다는 북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2007년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동시에 토요일 마다 인사동에서 북한군인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며 북송반대 시위도 했고요. 나중엔 취업비자가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대우건설에 취직해 4년 반 동안 근무하기도 했답니다.





**최종부** ▶ 통일발걸음 행사에서 탈북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기존 상식과 너무 다르단 생각을 했고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영미, 이성일 학생에게) 그런데 남한사회에 와서 적응하기가 쉽진 않았죠?

**오영미** ▶ 2009년 당시에는 탈북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만은 않아서 상처를 받다보니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어요. 북한에선 공부도 잘했고 자신감도 높았는데 남한에 와서 자존감도 낮아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안학교에 진학하진 않았어요. 또 다른 작은 북한사회, 김정은이 없는 북한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발표를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딱 1분만 손들면 돼'라고 자꾸 스스로를 다독이다 보니 이제 어디 가서 손 들고 발표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적극적으로 바뀐 성격 덕분에 대학에 입학해서도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있고, 특히 남북한청년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거나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어요.



**이성일** ▶ 처음 인천공항에 왔을 때 가로등이 짝 켜져 있는 걸 보고, 자동차에 라이트가 있는데 왜 가로등 켜놓았을까, 이 전력들을 북한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학과에 입학했다가 중공업 회사에서 연수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와 졸업했지만 남한으로 오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폐업했어요. 이후 제철소에서 근무하면서 군고구마 장사도 했고 전산회계를 자격증을 취득해 사무직으로 근무도 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 학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 자전거 행군





##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올리비에** ▶ 북한 정권 때문에 통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통일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데이터 등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해요. 이 순간에도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요.



**이성일** ▶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다보니 생각을 전환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영화 '트루먼 쇼'와 같이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민들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따라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 나쁜 게 아니다, 정권의 문제다'라고 구분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오영미** ▶ 북한 사람은 남한이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해요. 총 쏘는 게임을 해도 그 타겟이 남한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한 사람은 불쌍하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한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면 혼란이 올 거예요.

**이소현** ▶ 차인표 주연의 '크로싱'이란 영화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의 충격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남한이 잘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책이나

영상 등을 많이 접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남북한 청년이 지금 통일을 외쳐야 하는 이유는

**이소현** ▶ 저희가 지도를 그릴 때 그 안에 철책선을 그린다든가 남한 모양만 따로 그리진 않잖아요. 태극기도 빨간색, 파란색만 그리는 게 아닌 것처럼요. 즉 우린 그냥 하나인 거예요. 게다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장점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욱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배웠는데, 통일이 돼서 발전될 수 있다면 당연히 통일을 외쳐야죠.

**최종부** ▶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을 맞으려면 통일이 되어야 해요. 통일을 이뤄서 남북이 하나 된 통일한국을 기대해 봅니다.

**오영미** ▶ 북한에 있을 때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다보니 거길 한 번 가보고 싶어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잘 몰라도 청년 스스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 청년이 꿈을 꾸면 통일이 앞당겨질 거예요

**이성일** ▶ 남한에서 기술을 배운 뒤 나중에 북한에 가면 통일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 남한에 와서 자동차학과를 전공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지금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졸업하면 반드시 자동차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최종부** ▶ 제 꿈은 시장경제나 자유주의에 대해 연구하고 강연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안보교육도 같이 하고 싶어요. 남한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에게도 알기 쉽게 강의해주고 통일이 된 이후엔 북한에 가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올리비에** ▶ 저는 원래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려 했으니 통일 되면 북한에 가서 전통문화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잘 보존해주고 싶어요. 전통문화는 남한과 공통분모잖아요. 통일 이후 통합이 성공하려면 이와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영미** ▶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룬다면 가장 필요한 게 법과 제도일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계나 세금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또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이번 통일발걸음을 마치고 그런 생각이 더 커졌어요. 저희 팀원 하나가 탈북민인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길 들으면서 나와 공감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죠. 안보교육도 좋지만 통일발걸음 같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늘어나 제3의 영미, 제4의 영미가 많아지면 통일이 더 빨리 이뤄질 거라 생각해요.

〈글/사진. 기자회견〉



## 엄마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 대전 동구협의회 이우순 간사

세상을 살면서 '엄마'가 꼭 필요한 순간들을 꼽으라면, 오랜 산고 끝에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닐까 싶다. 북한에 계신 엄마 대신 산모의 침대맡에서 '애썼다'며 따스하게 손을 잡고 불을 어루만져주는 '엄마'. 시장가는 길에 잘 지내나 싶어 둘러보고, 햇옥수수가 맛있다고 한 다발씩 다 챙겨 보내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대전동구협의회 이우순 간사를 탈북여성들과 함께 만났다.

## 8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행복한 동행 중

이우순 간사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도 아니고 이름난 기업이나 기관의 임원도 아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왔다 가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는다. 그녀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다.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지만 홀몸인 독거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게 하는 일은 이우순 간사의 '특기'이자 '전공'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일부러 취득했다.

이우순 간사가 북한이탈주민과 인연을 맺게 된 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전부터다. 2006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다 이경숙(가명), 박태순 씨를 만나게 됐고 가끔 안부를 교환하며 만나온 것이 벌써 10년. 게다가 지난해에는 민주평통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을 통해 동근이와 향심이, 그리고 다른 탈북민의 자녀인 춘심 이까지 3명을 멘토링했으며, 박태순 씨의 쌍둥이 아이들도 손주처럼 아낀다. 작년 말 새로 대전 동구에 동지틀튼 설이 양도 예쁜 인연이 되었다.





탈북여성들은 이우순 간사와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했는데 그러는 사이 큰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경숙 씨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딸아이의 건강 때문에 결근을 자주 했고 갑자기 그만뒀다는 얘길 들었어요. 얼마 안있어 제가 위암 수술을 받게 돼 연락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경숙 씨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그 일로 실망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파서였지 그녀가 미웠던 건 아니었다고 말해줬어요.”

이우순 간사는 먼저 다가와 준 이경숙 씨가 고맙기도 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됐다. 시장에 갈 때마다 시간이 되면 집에 들러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이 더 깊어졌다.

“새로 휴대폰을 바꿨을 때도 제일 먼저 저에게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다면서 안부를 물어왔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제가 전화를 걸면 꼭 받으시는 것만 봐도 유대관계를 잘 맺었던 생각이 들어요.”

## **친정 엄마처럼 챙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또 다른 탈북여성인 박태순 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사례관리’를 하러 갔다가 만났다.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을 싫어하니까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막상 만나 보니 들던 것과 많이 달랐다. 박 씨는 남한에 와서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렸고 노력한 결과 남부럽지 않은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지금은 지원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탈북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사치스럽게 산다고 말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사님이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조금 꺼렸던 거예요.”

만남이 반복되면서 박태순 씨는 차츰 이우순 간사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했다. 탈북 후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데 복송돼서 아이를 유산했고 응급처치도 못 받았던 박 씨는 두 번의 복송 끝에 한국에 왔고 시형관 아기 시술로 얻은 쌍둥이를 3일간의 진통 끝에 낳았다.



◀ 박태순 씨의 집에서 이우순 간사와 함심이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손 내밀 데도 없고 손 잡아준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이우순 간사님은 항상 저를 챙겨주시는 게 참 감사했어요. 새터민 2천 명 중 저 하나 좀 빼먹어도 되는데, 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세요.” 박태순 씨는 함께 자리한 쌍둥이 아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당하게’ 멘티 향심이

‘어깨동무멘토링’에서 이우순 간사의 멘티였던 향심이도 지금은 엄마처럼 따른다. 향심이는 북한에서 겪었던 일, 탈북과 복송 과정, 그리고 남한에 와서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라기까지의 성장통을 이우순 간사에게 속시원하게 다 이야기했다. 차별받고 싶지 않아 북한에서 왔단 걸 밝히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대전 동구협의회 추천으로 올해 민주평통재단 장학생이 된 후부터 좀 더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게 됐다.

축구를 하는 데다 생활비를 직접 버느라 향심이가 바빠서 멘토링 기간동안 자주는 만나지 못했지만 연말에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던 음식나눔행사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 진로나 취업을 두고도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반면 동근이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계속 동근이와의 만남을 늦추던 엄마, 그리고 밤 줍기 체험을 갔을 때 동근이가 밤을 잘 줍지 못하던 모습, 리조트 수영장에 데려갔을 때 수영복을 받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 물어보니 동근이는 실제 18살인데 지능지수가 7살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우순 간사는 천진난만한 동근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주변을 맴돌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있다.

동근이는 또 다른 멘티인 춘심이와 함께 현재 하나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부방에 다니고 있다. 며칠 전 미숫가루도 전달하고 화장실도 청소해주려고 다른 자문위원들과 같이 가서 만났다. 대전 동구협의회는 이 아이들 중 시간이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멘토멘티 캠프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다.



▲ 어깨동무하기 여름방학 캠프



▲ 밤 줍기 체험



## '3개 받으면 1개는 나눌 줄 아는 마음' 가져야

이우순 간사는 탈북민들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다. 아직은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만약 남한 사람들에게 3개를 받았다면 그 중 1개는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곤 한다.

또한 남한의 아이들이 탈북민 친구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7기에는 남북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통일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감과 직접 만나 의논하고 자매결연도 맺을 계획이다. 새로 임명된 남진근 협의회장 역시 청소년 통일교육 위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해 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17기 간사로 이제 다시 출발하는 이우순 간사는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도움을 줄 형편은 아니지만 탈북민 아이들의 멘토링도 열심히 해서 남한 어린이들 마냥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말 음식나눔 행사에서 향심이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다.

<글/사진. 기자희>

## 민주평통재단 장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할래요!

향심이는 재혼한 아빠, 새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새엄마로부터 자주 구박을 받은 데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해야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북한을 떠나기로 맘먹었고 2009년 동생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친엄마를 만났다. 처음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했지만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축구를 하게 된 뒤부터는 친구들도 생기고 자신감도 높아졌다.

이후 생활체육학과로 진학해 시합도 나가고 연습도 열심히 했지만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기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학점관리도 신경을 썼다.

그리고 이젠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편입을 생각하던 향심이가 학비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이우순 멘토자문위원이 민주평통 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해줬고 합격통지를 받았다.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자문위원님이 추천해주셨으니 누가 되지 말자는 생각에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다행히 장학생이 됐어요. 엄마처럼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자주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민주평통 재단 장학생으로서 학업에 최선을 다할게요."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마련된 역사·통일골든벨 대회에서 드디어 대망의 골든벨이 울렸다. 지난해의 경우 최후의 1인이 50번 문제에서 탈락해 진한 아쉬움을 남겼으나 올해는 1학년 학생이 마지막 문제에 도전, 당당히 정답을 맞힘으로써 110대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 26만 명 예선 거쳐 100인 최종 결선대회 참가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전국 결선대회인 'KBS-1TV 도전! 역사·통일골든벨' 녹화가 지난 7월 19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448개 고등학교에서 총 26만여 명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으며 미국, 쿠웨이트, 브라질,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지역대회 입상 학생 10명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을 포함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치러진 대회는 지난 16일 KBS-1TV를 통해 방영됐다.

대회 시작 전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앞에 마련된 세트장 양쪽 응원석은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학생 등 방청객들로 가득 메워졌다. 곳곳에 '골든벨 호로록~', '정답을 훔치는 괴도' 등 재치 있는 플래카드와 피켓들이 눈에 띄었다. 상기된 얼굴로 경해진 번호 좌석에 학생들이 모두 앉자 이내 커다란 함성과 함께 결선대회가 시작됐다.





광복절 특집 대회인 만큼 첫 번째 문제는 태극기 그리기로 출발했다. 건곤감리와 물결의 방향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지만 박태원 아나운서의 힌트에 힘입어 전원이 문제를 맞혔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로 북한 동요가 흘러나왔다. 북한말 '깨꼬해요'의 뜻을 묻는 문제였는데 한겨레고등학교 탈북학생인 이금성 학생이 정답을 '까꿍'이라고 설명해 줬다. 2013년 동생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온 금성이는 탈북했다 실패한 후 다시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들려줬다. 북한에 있을 때는 드라마를 많이 봐서 연예인 장나라 씨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걸그룹 AOA를 좋아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 다양한 분야의 문제도 척척 맞춰낸 결선 진출학생들

문제는 근대사나 통일·북한 분야 외에도 상식, 문화재, 세계사, 문화예술, 맞춤법,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됐다.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강자들인 만큼 대다수가 정답을 맞히며 승승장구 했지만 11번 무기의 이름을 묻는 문제에서 오답을 쓴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50명이 채 남지 않게 됐다.

이어 60년대 대중가요 '마포종점'의 가사에 나온 서울시내 대중교통편을 묻는 문제에서 또 다시 열 명 넘는 학생이 탈락했다. 잠시 대회열기를 진정시키며, 멀리 전남에서 손자를 응원 오신 87세 윤운자 할머니가 6.25 난리통에 딸아이를 출산해서 피난을 다녀야 했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다.







## 수준급 지식, 올바른 역사인식 갖춘 학생들 많아

패자부활전을 거치며 다시 기회를 얻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표정에는 승리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맺혔다. 한옥과 관련한 16번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도 4명을 제외하고 전부 맞췄고 20번 이후 3문제 연속 전원이 정답을 맞추는 광경을 연출하자 응원석의 함성은 더욱 높아졌다. 소수의 학생들만 탈락한 채 27번에서도 전원정답이 나오자 박태원 아나운서는 "이대로 전원이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70주년 골든벨 타종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그러나 29번에서 '변-란-요' 문제가 생소했는지 갑자기 많은 탈락자가 나오게 되고, 이어 32번 근대문학관련 문제에서 추가 탈락자가 나와 9명만 남은 상황이 됐다. 그때 '방송타고 싶어 고구마 심다 왔어요' 응원플래카드의 주인공 경기 여강교 윤승현 학생이 소개됐다. 승현이는 지난해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지만, 승현이가 조직한 역사동아리 회원들의 힘찬 응원에 힘입어 다시 골든벨에 대한 의지를 힘차게 다졌다. 윤승현 학생을 비롯해 이번 대회에서는 수준급의 역사 지식,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학생들이 많았다. 강원 흥천고 2학년 주원기 학생은 "독도가 우리 땅이며 일본이 조선인 강제 징용장소인 군함도를 영치없이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점, 그리고 위안부들의 상처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힘찬 목소리로 웅변했다.





## 1학년 하남고 전진웅 학생 110대 골든벨 울려

41번 문제에서 최후의 4인이 결정됐다. 이제 남은 학생은 하남고 전진웅, 청주대성고 이수지, 의왕 우성고 이정현, 제주 오현고 김성민 학생까지 4명뿐. 각오를 한마디 듣는 시간에 김성민 학생은 '물건너 왔는데 제주도를 대표해 내가 꼭 골든벨을 울린다'고 말했고 이수지 학생은 '여자의 자존심을 걸고 꼭 골든벨을 울린다', 이정현 학생은 '전국 이과생을 대표해서 여기까지 왔고 골든벨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전진웅 학생은 '막내의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42번 문제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관장이 출제했다. 출제에 앞서 윤 관장은 "광복70년 독립기념관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골든벨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42번 문제에서는 4명이 가볍게 정답을 맞췄지만 43, 45번 문제에서 두 명이 탈락, 46번 문제에서 이수지 학생이 답을 쓰지 못해 마침내 하남고 1학년 전진웅 학생이 형 누나들을 제치고 최후의 1인에 등극했다. '전진하는 꿈'이라는 별명을 얻은 진웅이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찬스조차 쓰지 않고 49번 문제까지 맞혀나갔다.



마침내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골든벨 아래로 이동한 진웅이에게 응원문자들이 도착했다. 담임선생님은 '네가 골든벨을 올릴 거라 믿는다. 진웅이는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우리반 아이들 모두 기도할게'라는 문자를 보내오셨고 진웅이는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 5개의 골든벨 문제 중 빨간색을 문제지를 고른 진웅이는 "열정의 색, 마지막까지 불타오르겠다"고 외친 뒤 힘차게 골든벨을 향해 걸어들어갔다. 그리고 한양 동서남북 4대 문 명칭을 쓰는 50번 문제까지 당당히 맞혀 마침내 110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다.



## 골든벨을 빛낸 아이들의 숨은 장미

### 제이슨 리 "한국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문제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한 학생이 있었다. 미국이름 제이슨 리 이관희 학생. 한국에서 살았던 적은 없지만 네 살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다는 관희 학생은 영어로 치러진 미국지역 골든벨 우승자다. 관희는 '한국 너 + 너 + 너(너무너무) 좋아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웃음을 줬다.



## 골든벨 '최고의 카수' 대현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던 경주고 2학년 김대현 학생은 전국 노래자랑 예심에 출전한 실력을 입증하듯 기꺼이 골든벨 '카수'가 되어주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노래를 구성진 트로트와 춤으로 보여주며 순식간에 방청객들을 사로잡은 대현이는 방년 18세. 엑소나 소녀시대보다 설운도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대현이의 흥겨운 노래에 박태원·김지원 아나운서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쳤다.

## 김구선생님을 닮은 영훈이의 특기는 EXID 춤

김구 선생님을 꼭 빼닮은 인천 세일고 영훈이는 안경과 의상까지 모두 갖춰 입은 뒤 "광복70주년 이런 큰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었다. 과거에서 왔다. 골든벨을 올리겠다"고 말하며 입담을 과시했다. 출중한 역사실력까지 갖춘 영훈이의 반전은 바로 EXID의 노래에 맞춰 추는 댄스실력. 댄스머신처럼 빠르고 재미있는 춤을 선보인 영훈이에게 엄마는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미남'이라고 추켜세우셨다.



## 독립운동가 구연영 선생의 증손자 본승이



서울 양정고 2학년 구본승 학생은 역사·통일골든벨을 '나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마라토너 손기정, 대한광복군 총사령관 박상진 등을 배출한 학교에 현재 재학중이기도 하지만 고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구연영 선생이기 때문. 구연영 선생은 을미의병의 선봉에 섰고 구국회를 조직했으며 일본의 반민족행위를 규탄하다 순국하셨다.



## KBS 역사통일 골든벨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 독립기념관에서 통일골든벨 매우 뜻깊어 | 한상길 충북부의장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통일골든벨을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해요. 선열들의 얼이 서린 이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행사를 자주 해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과정을 인지하고 통일의 선봉자들이 됐으면 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한 맺힌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나 가장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는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해요. 일제 치하에서는 대한독립해방이, 그 후 80년대까지는 가난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시급했고, 80~90년대 넘어서서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기에 목숨 걸고 통일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우리나라 통일인재로 자라나길 | 박창열 · 문윤희(박성호 학생 학부모)

아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보려고 어제 울산에서 올라 왔다가 근처 친척집에서 자고 오늘 독립기념관에 왔어요. 성효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역사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정치와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집에서 관련 내용을 주제로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왜곡된 역사 바로잡는 역사학자 되고 싶어 |

골든벨 110대 우승자 전진웅 & 류인호 경기 하남시협의회장



### 전진웅

마지막 골든벨 50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골든벨 우승자여서가 아니라 저는 통일은 꼭 이뤄야한다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반도라는 이점을 살려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갖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도 가보고 싶지만, 부산에서 서울을 통과해 북한 땅을 지나 중국, 러시아로 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보고 싶어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선생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역사연구단체에 들어가 주변국들이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입증해 보이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싶어요.

### 류인호 협의회장

우리 협의회에서 두 명의 학생이 결선에 진출한 데다 평소에 통일골든벨에 관심이 있어 왔는데 전진웅 학생이 골든벨을 올려줘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든벨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지난 7월 18일(토) 해외지역 골든벨 참가학생과 탈북학생 10여명이 독립기념관 앞에 멈춰선 버스에서 내렸다. 2박 3일간 진행된 통일·안보·역사 유적지 견학 마지막 날이었다. 무더운 열기 속 솟아나는 땀을 연신 닦으며 전시관으로 들어서던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선열들의 발자취와 기개에 일순 숨을 죽였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수많은 이름들 앞에 절로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 통한의 역사 속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첫 번째 발길이 머문 곳은 '겨레의 시련'이라 이름 붙은 2관의 '을사늑약' 체결 현장이었다. 일본의 강압에도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던 고종황제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을사늑약에 반발해 분연히 일어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에 대해 배웠다. 또한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200만 명이 참가했던 3.1운동의 경우 단일 독립사건에 한 나라 인구의 10%가 참여한 것은 세계사에서 유일하다는 설명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학생들이 분개한 것은 서대문형무소 모형 전시물 앞에 이르렀을 때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70여 가지의 고문이 자행됐다는 서대문형무소. 악명 높은 고문을 받게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선열들이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누리는 조국의 자유, 평화라는 가치를 위해서였다는 말이 학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윤지(중국 칭다오)와 혜준(브라질)이는 “기념관에 와서 직접 보니까 마음이 진짜 뭉클해지고 독립운

동가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주현(필리핀)이는 “제가 당시에 살았다면 고문과 탄압을 견디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며 “이 곳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싸하면서 경건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광복 70주년, 통일 열망에 불씨 당기는 계기 되길



두 번째 목적지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였다. 유관순 동상 앞 광장으로 들어서자 백여 년 전 아우내장터에 모인 3천 명의 만세 함성이 들려왔고, 일본 헌병들의 총에 맞아 스러진 이들의 피비린내가 바람에 실려 오는 듯 했다. 학생들은 고문으로 코뼈가 으스러진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기억하며 직접 관고문을 체험해 보기도 했다. 자신들과 비슷한 17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짧고 치열했던 생애를 기억하며 학생들은 해설사의 말에 따라 동상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세 번 크게 외쳤다.



3일간의 관람을 모두 마친 아이들에게 꿈을 물었더니 누구는 외교관이라고 하고 누구는 파일럿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교사가 될 거라 한다. “땅이 크거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큰 나라’가 아니다.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이준 열사의 말처럼 이 아이들은 10년 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역사 앞에 책임감 강한 청년으로 자라날 것이다. 청년 독립운동가들이 황량한 광야로 독립운동의 기개를 품고 떠났다면 이들은 다시 해외로 돌아가더라도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염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아이들은 이번 통일·안보·역사 유적지 현장을 들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외할머니가 6.25때 헤어진 오빠를 평생 그리워하신다는 관희(미국), 남북한 사람들은 항상 전쟁만 한다는 외국인들의 오해가 사라지려면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균이(쿠웨이트), 땅굴을 들어갔다가 ‘같은 민족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금성이(탈북학생) 등 학생 모두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번 견학이 미래 인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본다.





## 민주평통 대학생기자단 동행기

# 통일 · 안보 · 역사 유적지 견학 2박 3일, 그 여정을 담다

(전병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중국,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온 10여 명의 통일골든벨 참가 학생들과 국내 탈북 학생 2명은 지난 7월 16~18일 '통일·안보·역사 유적지 견학'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제3땅굴, 도라전망대, 경복궁, 천안독립기념관, 유관순 항일 유적지 등 안보·역사 탐방을 비롯하여 KBS 음악방송 방청 등 문화 체험의 시간 등을 가졌다.

## 너무나 아름다웠고 가슴이 아려왔어요 ..

이주현/필리핀 ▶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진으로만 보고 방송으로만 접하던 경복궁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특히, 잘 알려지지 않던 건청궁을 갔을 때가 가장 깊게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너무나도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을미사변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지는 잘 몰랐거든요."



▲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일정의 시작은 경복궁 견학이었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경복궁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궁에 들어가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정전과 수정전, 경화루, 사정전, 강녕전, 그리고 향원정과 마지막 건청궁의 순서로 궁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특히, 단청이나 품계석 등 역사 유물들을 견학할 때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은 흥미와 배움에 대한 의지로 가득했다. 또한 경복궁 끝에 위치한 건청궁에 이르렀을 때는 민족의 비극과 슬픔을 느끼며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보이기도 했다.

## 조금은 무서웠어요, 또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요 ●●

김만균/쿠웨이트 ▶ “DMZ 인근을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깐요.”

안보견학지로 가게 된 곳은 파주 지역의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박 3일의 일정 중에서 이곳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뽑았다. 먼저, 방문한 곳은 제3땅굴이었다. 학생들은 짧은 DMZ와 땅굴 관련 영상을 시청한 다음, 장병으로부터 북한이 땅굴을 판 이유와 이 땅굴을 남한에서 발견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들었다. 또한 설명이 끝나고 땅굴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모두 긴장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견학을 끝내고 올라온 학생들은 땅굴이 이렇게 깊고 길 줄은 몰랐으며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분단 현실과 전쟁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었다고.

##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가지 못하는 걸까요? ●●

이해지/중국 ▶ “고향 흙 한 줌 못 들고 오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꼭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지역은 도라산 전망대와 도라산역이었다. 전망대에 도착해 국군 장병의 설명을 들던 학생들은 눈앞에 개성의 모습이 보이자 모두 놀라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은 날씨가 매우 좋아 바로 앞의 북한, 많은 초소와 군인들까지 평소보다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금강산 관광을 갔던 할머니께서 고향땅의 흙을 조금 가져가시기 위해 챙겼다가 발각돼 모두 버린 적이 있다”는 설명에서는 고작 흙 한줌도 가져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그 할머니의 심정에 공감하며 가슴 아파하기도 했다.

## 대한독립 만세! 뜨거움을 외치다! ..

이금성/한국 ▶ “조금은 부끄러웠지만 큰소리로 외쳤어요. 이상하게 외칠 때마다 가슴 속에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방문한 곳은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항일 유적지였다. 먼저 독립기념관에 갔을 때 학생들은 그 웅장한 규모에 먼저 놀라고 있었다. 장소에 도착하자 미리 전문해설사가 나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겨레의 시련’관에 들어가 관람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독립과정과 을미사변, 을사늑약 등 우리 민족의 시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배우고 듣자 더욱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순 항일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는 유관순 열사의 항일 정신과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유관순 열사 동상 앞에서 학생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쳤고, 이 만세 소리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 여름철이 되면 남한은 '물놀이', 북한은 '천렵'

글\_강원철(위드-유 기획팀장)

한반도가 뜨겁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땡볕 더위에 전국이 가마솥처럼 달아올랐다.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산과 강,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명 해수욕장과 강으로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그야말로 매일 인산인해다. 이처럼 7~8월만 되면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피서지를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원한 물속에서 한바탕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땡볕 더위를 잊게 되고, 여기에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 증명서 없이 여행불가, 그들만의 휴식문화 즐겨

북한주민들에게 여름은 그야말로 힘든 계절이 아닐 수 없다. 남한과 같은 피서문화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한 해 15일 정도 유급휴가를 제공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해 놨다. 그러나 대부분은 휴가는 가족의 경조사나 경제활동, 김장이나 겨울철 땔감을 장만할 때 사용한다. 남한처럼 놀러 가기 위해 휴가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한 북한의 통제 시스템도 피서를 즐기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군에서 군으로 가려고 해도 관할 보안소에서 승인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쉽게 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다. 타 지역으로 가려는 이유와 명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놀러 가기 위해 여행증명서를 신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북한의 교통 사정은 외지로 놀러 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꺾게 한다. 에너지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에서 목적지에 정시(定時)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아까운 휴가를 길에서 다 버리고 싶지 않다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처럼 구조적인 시스템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북한에는 남한과 같은 피서문화가 정착하지 못했지만, 북한주민들은 그들만의 휴식 문화를 만들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 친구 및 동료와 강에서 잡은 물고기로 끓이는 어죽의 맛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인근 지역의 가까운 강이나 바다로 놀러 간다. 7월 27일(전승기념일), 8월 15일, 8월 28일(청년절)에 많이 놀러 가는 편인데, 이날들은 북한 당국이 지정한 공휴일이다. 국가가 정해놓은 휴일이다 보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기에 이날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놀러 갈 때는 가족보다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끼리 많이 가는 편이다.



▲ 마전해수욕장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으로 많이 놀러 가는데, 이것을 천렵(川獵)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강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논다는 의미다.

이때 꼭 준비해가는 물건이 있으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반두’와 ‘가마술’이 그것이다. 고기를 잡아 여름 보양식인 어죽을 족석에서 썰어 먹기 위해서인데, 어죽의 주재료는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강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곧바로 강물에 뛰어든다. 강에서 반두로 열심히 고기 잡기에 열중하다 보면 더위는 금방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친구, 동료들과 함께해서 더욱 신난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잡은 물고기로 어죽을 끓이며 식사준비에 돌입한다. 시원한 물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더위를 날려 버렸다면, 이번에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맛있게 끓인 죽과 준비해 온 음식을 펼쳐놓고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된다. 음식에 소주 한 잔씩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래와 춤사위가 펼쳐지게 되고, 그 순간만큼은 힘들었던 일상과 무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 평양주민들은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로 피서

이처럼 대부분의 북한의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려 강으로 ‘천렵’을 간다면, 평양 주민들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 주민들을 위해 무더운 여름을 날수 있는 특별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욕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양과 가까운 황해남도 지역 해수욕장으로 가는 전용열차와 셔틀버스가 여름이면 매일 운영되고 있다. 고위급 인사나 당 간부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서 놀 수 있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빌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며칠씩 강이나 바닷가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 들어 북한 특권층 내에서는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마전해수욕장’이 인기라고 한다. 김정은의 지시로 마전해수욕장에 최신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 만경대물놀이장

대형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평양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평양에는 만경대물놀이장,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등 대형 워터파크가 여러 개 있다. 평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단 입장표가 있어야 한다. 워나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입장표로 하루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표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암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암표 중에는 VIP입장표도 있다. 이 표만 있으면 워터파크에 들어가려고 줄을 설 필요도 없다. 워터파크 내 모든 시설과 놀이기구 이용도 1순위이다. 일반 주민들이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당 간부나 신혼부자들이 주로 구매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평양 내 워터파크들에서 문제점들이 하나 둘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워터파크의 생명은 맑은 물인데, 수질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지만 부족한 북한의 전력 사정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물놀이 장 내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물속에서 소변을 해결하는 암체족들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워터파크에 한 번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평양 주민들이 수도룩하다고 한다.

## 북한의 여름 보양식 1위는 개장국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음식으로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다. 남한에서는 삼계탕이 여름 보양식 1위라면 북한은 개장국(보신탕)이 최고 인기다. 이열치열, 뜨거운 보양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려는 것은 남과 북의 공통점인 것 같다. 냉면도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다. 특히 평양의 '옥류관' 냉면은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표가 있어야 냉면을 먹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이 이 표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옥류관에서 냉면 먹기가 쉽지 않다 보니 짝퉁 옥류관 냉면이 등장해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고 한다.



▲ 옥류관 냉면

이처럼 북한 주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남한처럼 며칠씩 피서를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만의 피서를 즐기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장사로 돈을 번 신혼부자들이 생겨나면서 그동안 없었던 피서 문화가 싹트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주민들도 남한처럼 여름이 되면 산과 바다, 강으로 가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13년 북한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남한으로 온 열일곱 살 윤희(가명, 함경도, 당시 열다섯 살)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생각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영어 과목을 보충하느라 분주하다. 아직 영화관에도 안 가봤고 놀이공원도 한 번 안 가봤다는 윤희는 현재 남한에서의 학교생활이 맘에 들지만, 놀이만큼은 북한 친구들과 했던 게 훨씬 재미있단다.

## 반납할 교과서에 왜 이름을 쓸까?

윤희는 남한학교에 입학한 뒤 새 교과서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북한에서는 언니 오빠들이 쓰던 교과서를 물려받기 때문에 낡거나 아예 몇 페이지가 찢어지고 없는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했다.

“수업내용을 메모할 때 저는 따로 공책을 만들어 그 위에 적었어요. 그런데 남한 애들을 보니 교과서에 자기 이름을 적고 책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는 거예요. ‘어? 재네 왜 그러지? 교과서 바치려면(반납하려면) 나중에 다 지워야 할 텐데?’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교과서는 자기가 갖는 거래요. 게다가 북한에선 책 한 개로 2~3명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 시험 때마다 먼저 교과서를 차지하려고 신경전도 벌어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편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놀랐던 건 체육과목에 교과서가 있다는 거였다. 북한에선 체육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한국 교과서에는 다양한 체육관련 지식이 나와 있어서 흥미로웠단다. 특히 북한 체육시간엔 ‘고조평행봉’이란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다들 배워야 했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무서웠고 실용적이지 않은 ‘예술체육’을 배우는 것도 싫었다고.





남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바라보는 윤희의 시선 또한 매우 긍정적이고 어른스러웠다.

“한국 쌤(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르는 거 물어보면 따라다니면서 알려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북한은 애들이 공부할 마음도 없고, 선생님도 뭘 물어보면 노골적으로 귀찮아하세요. 근데 남한 선생님들은 무섭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애들이 쌤들에게 욕을 할 때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그런 말 하면 개는 하루 종일 맞을 걸요(웃음).”

윤희는 ‘남한 아이들이 예의를 잘 지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뜻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우리들끼리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실수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신발을 밟았다고 하면 여기서는 ‘미안해’라며 사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쓱 지나가요. 또 남학생과 여학생이 싸우면 여기서는 여자가 약하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서로 봐주는 거 없이 싸웠어요.”

## 남한 학교는 일을 안시켜서 좋아요

하지만 TV의 교양오락 프로그램은 아직 재미있는 줄 모르겠고, 개그는 확실히 북한 것들이 재미있단다. 북한은 TV 채널이 1개밖에 없어 ‘석개울의 새봄’과 같은 오래된 영화를 반복해서 틀어주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TV프로를 보는 대신 녹화기를 사서 CD를 넣어 보곤 한다. 윤희는 엄격한 단속 대상인 한국드라마 대신 중국이나 싱가포르 드라마를 가끔 봤다고 했다. 그리고 역시나 아직 어린 소녀답게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며 열을 올린다.

“소년장수 쇠매, 다람이와 고슴도치 이런 만화는 북한정권을 대놓고 찬양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내용이 재미있어요. 들른 은연중에 사상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쇠매는 고구려 장수이고, 백성들을 잘 단합해서 나쁜 놈들을 쳐부순다는 내용이에요.”

남한과 북한의 장점이 반반인 것도 있다. 북한 학교에서는 농장에 일을 하러 보내는데 남한 학교에서는 일을 안시켜서 ‘되게 좋다’고 한다. 하지만 남한에선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해서 ‘아주 좋은 지는 잘 모르겠다’며 웃는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야 나무 같은 거나 하러 다니지만 중학생이 되면 새벽 4시부터 산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서 밤 11시에나 집에 들어오는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고.



“게다가 남한 학교는 따로 청소해주는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선 석개칠, 벽 청소, 화장실 청소 같은 걸 학생들이 다 해요. 특히 교장선생님 사택을 지었을 땐 새벽에 하천에 가서 자갈을 꽤 많이 주워다 날랐던 기억도 나요.”





## 함께 있어도 '핸드폰 문자로 대화하는' 남한 아이들

통일토크(바로가기)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통일이 되면 염소를 많이 사서 북한에 가져다주고 싶다고 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를 몰고 북한에 온 적이 있지만 소는 주로 경작용으로만 쓰는 반면, 염소는 우유도 먹고 고기도 먹는 '버릴 것 없는' 가축이기 때문이라고. 윤희도 북한 학교에서 염소젖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다른 학교엔 없었지만 우리 학교엔 염소가 많아서 아이들은 염소젖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린내가 나고 물을 너무 많이 타는 데다, 소금간이 그때그때 달라 어쩔 땐 짜고 또 어쩔 땐 너무 싱거워 맛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남한에서 먹는 우유급식은 어떤지 물었더니 처음 먹었을 땐 노린내도 없고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속이 거북해져서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털어놓는다. 아마 우유를 꾸준히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당불내증'을 경험한 것 같았다.

윤희가 제일 좋아하는 남한 음식은 떡갈비와 치킨이라고 했다.

"북한에선 닭을 삶아서 먹는데 여긴 튀겨서 먹잖아요. 북한 친구들도 치킨이나 피자를 간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친구들은 간식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을 거예요. 밥도 이밥이 아니잖아요."

윤희는 북한 친구들과 놀던 때가 많이 그리다고 했다. 놀이의 이름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공기놀이도 하고 제기까기(오자미 같은 걸로 맞추며 하는 놀이)도 하고, 땅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망차기(사방치기)도 재미있어서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다는 윤희.

"그런데 남한 애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서로 핸드폰을 갖고 놀잖아요. 심지어는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니 재미 없는 것 같아요."



남한 사회에 나오자마자 첫날에 핸드폰부터 샀던 윤희였다. 처음 자기만의 핸드폰을 갖게 됐을 땐 설레고 좋았는데, 핸드폰을 잘못 만지면 폭탄요금이 나온단 말에 한동안은 시계 대용으로만 썼다. 핸드폰은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엄마 외엔 통화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 고향 마을에도 폴더폰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고 한다.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북한에 계신 아빠도, 친구들도 전화기가 없어 연락할 수가 없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윤희는 빨리 남북한 왕래가 자유로워져서 핸드폰으로 즐겁게 수다를 떨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글. 기자희>





**'8천만 통일의 노래' MBC DMZ 평화콘서트서 공개**  
**'우리의 소원' 이을 국민통일가요 탄생 기대**

"우리 이제 하나 되어 걸어요 / 우리 함께 손잡고 웃어요 / 우리 서로 그만큼 가깝죠 / 오래전부터 남과 북은 하나였으니까요 / 우리 하나이니까...(우리는 하나이니까 가사 중)"

**🎵 8천만 통일의 노래, MBC DMZ 평화콘서트 통해 전국 방영**

민주평통은 8월 14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된 'MBC 광복 70주년 특집 DMZ 평화콘서트(이하 DMZ 평화콘서트)'에서 '8천만 통일의 노래'를 처음 선보였다. '8천만 통일의 노래'는 지난 7월 실시한 통일노래 가사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3편을 선정해 작곡한 것으로 국내 정상급 작곡가와 가수들이 참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

현경대 수석부위원장 ▶



'DMZ 평화콘서트'는 아나운서 김성주와 '소녀시대' 윤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8천만 통일의 노래'와 '감동과 화합의 하모니'라는 주제 아래,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겨레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통일대상 수상작인 '우리는 하나이니까(조영수 작곡)'는 가수 에일리가, 최우수상 수상작 '내일 말고, 지금 바로(이단열차기 작곡)'는 인피니트-에이핑크 혼성 그룹이, 우수상 수상작인 '8천만 통일의 노래(김도훈 작곡)'는 FT아일랜드가 각각 불렀다. 특히 '우리는 하나이니까'는 서정적 멜로디와 피아노 선율이 에일리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어우러져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인피니트 & 에이핑크 '내일 말고, 지금 바로'

▼ FT아일랜드 '8천만 통일의 노래'



## 🎵 공모전 시상식에서 탈북민 및 재외동포, 실향민 수상

이에 앞서 민주평통은 '8천만 통일의 노래' 가사 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3일(목)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박다인 씨와 특별상 박수련 학생(두리하나 국제학교, 탈북청소년 학교)을 비롯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15명에게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수상자 명단 및 통일 노래 3곡 가사 하단 참조). 수상자들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3명을 비롯해 LA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82세의 실향민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한 달여간 진행됐으며, 7살 어린이에서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해 2천여 편이 접수되는 등 국내외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대상 수상자 박다인

## 통일노래 공모전 수상작

상 장 명	성명	제목
통일대상	박다연	우리는 하나이니까
최우수상	김양식	내일 말고, 지금 바로
우 수 상	태종호	8천만 통일의 노래
장 려 상	강효수	할머니의 환상
	김기섭	하나의 나라로
	김지혜	둘에서 시작되었지
	오은정	통일 그날은
	윤기준	한 가족
	윤인자	저 강처럼 저 바람처럼
	이태희	통통나래
	최명지	그 날
	최문정	하나 된 나라
	최복화	통일은 통일은
홍정화	평양냉면 함흥냉면	
특 별 상	박수련	나의 소원 통일 우리 소원 통일

## 심사평

고학찬 심사위원장(예술의전당 사장)

예상보다 어려운 심사였다. 우선, '우리는 하나이니까'가 가장 돋보였다. 무엇보다 통일노래에 '통일'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서도 우리 민족의 통일의 염원을 절절하게 표현한 시가 좋았다. '하나였으니까'에서 '하나이니까'로 맺어 가는 우리의 다짐이 더욱 빛이 난다.

그 외에도 소년의 모습으로만 기억속에 남은 오빠의 환상을 그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노래한 '할머니의 환상'과 통일 된 후에 남북의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신나게 노래한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눈에 띈다.



## 우리는 하나이니까

- 박다연 -

지금 행복한가요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죠

누려야 할 기쁨이 남았죠  
우리 할 수 있는 일

위를 올려다봐요  
하늘은 그대로인데

달라져 있는 우리 모습  
그리움의 고단함일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되어 걸어요  
우리 함께 손잡고 웃어요

우린 서로 그만큼 가깝죠  
오래전부터 남과 북은 하나였으니까요

우린 하나이니까





## 내일 말고 지금 바로

- 김양식 -



이젠 내 손 잡아요 그대  
더는 기다리지 말아요  
망설이지 마 이제 손을 잡아요

너와 나 같이 걸을 수 있을까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마

생각해요 마주보고 웃는 그날을  
남과 북이 사랑하는 그날을

알아요  
지금은 많이 아프다는 걸  
아무 감정 없는 많은 오해들

괜찮아요 지나가면 다 잊혀질 거야  
하얀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

등 돌리지 말고 마주보고  
내 말 들어 통일을 해  
이제 온전한 하나로  
날 안아줄래요

## 8천만 통일의 노래

- 태종호 -

동방의 밝은 빛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 8천만 한 겨레

자유와 평화 함께 누리며  
우리 함께 손잡고 미래로 달리자

가슴을 활짝 열고 미래를 보라  
어려움 이겨낸 기적의 나라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 된 한반도 세계를 이끈다  
8천만의 빛나는 통일코리아



# 통일염원으로 전국 70개 봉화에 불 밝힌다!

##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준비 한마음 봉화 대축제'



광복 70주년 전야, 제주에서 피어오른 봉화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등 전국 69개 봉수대를 거쳐 마침내 남산에서 환하게 불을 밝혔다.

민주평통은 지난 8월 14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통일준비 의지로 모으기 위해 '통일준비 한마음 봉화 대축제(이하 봉화 대축제)'를 개최했다. 봉화 대축제는 지난 23년 간 서울에서만 열리던 남산봉화식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민주평통은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에서 복구 가능한 69개 봉수대를 발굴해 보수했다. 70번째 봉화 점화지인 서울 남산에서는 이날 오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 및 공연이 펼쳐졌으며 6시부터 봉화식 본행사가 진행됐다. 봉화 대축제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 서울 남산에서 평화통일을 함께 기원한 시민들

봉화 대축제가 개최되던 날, 남산 팔각정 앞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평화통일 열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열렸고 다양한 통일 관련 체험 부스들이 마련됐다. 부설무대에서는 아이스난타와 버스킹 밴드 공연, 통일대박 터뜨리기, 통일기원 플래시몹, 게릴라 콘서트 등이 진행됐으며, 행사장 양쪽에는 손도장 대형태극기, 통일염원 캘리그래피, 구국열사와 사진찍기, 북한 장마당 재현부스들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입구에는 '통일공감'이라고 쓰인 대형 원형 에어아치를 설치해 통일 축제의 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덕분에 민



주평통 자문위원과 그 가족 뿐 아니라 일반 시민, 외국인 관광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부대 행사는 물방울이 시원하게 흩뿌려지는 '아이스난타'로 막을 열었다.



'통일캘리그래피'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통일기원 문구를 전문가들이 예쁜 손글씨로 써주기도 했고, 자기만의 멋진 캘리그래피를 직접 제작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가족 나들이객 위주인 만큼 영유아, 초등학교 관람객들도 많았는데 아이들에게 봉화 대축제는 '방학숙제'도 하고 여러 체험도 해보는 '일석이조'의 즐거운 놀이였다. 통일고깔 부스에서는 커다란 색도화지로 고깔모자를 만든 뒤 '평화통일', 'For the world peace'와 같은 문구를 풀로 붙여 머리에 쓸 수 있도록 했고 부스 안쪽에서는

어린이들의 어깨나 손등, 팔 등에 태극기 문양을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북한장마당 부스에서는 손가락과자, 별과자, 콩알사탕 등 이색 북한 과자를 맛볼 수 있었다.



통일 리본 달기 부스 옆, 휴전선을 상징하는 철조망에는 통일 기원의 마음을 담은 리본들이 빠르게 늘어갔다. 초등학교 5학년 유정이(사진 오른쪽)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리본에 썼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서 재미있게 놀 것"이라고 말했다. 리본 중에는 탈북민이 쓴 듯한 '우리집 감자 먹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도 있었다.





그밖에 시민들이 직접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통일염원, 광복 기념 행사들이 많았다. '통일 대박 터트리기'에서는 마치 가을운동회처럼 부모와 아이가 한마음이 되어 오자미로 박을 터뜨렸고, '태극기 손도장찍기' 코너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물감을 손에 찍어 태극기에 색을 채워나갔다. 이 손도장 태극기는 6시부터 행사장 하늘 높이 내걸려 펼쳐지며 광복절의 의미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건 '통일기원 플래시몹'이었다. 심수 명의 청년들이 음악에 맞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공연단 주변을 에두른 시민들은 큰 박수로 호응하거나 직접 플래시몹 춤을 따라하며 흥을 돋웠다. 연이어 선보인 건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형식의 미니 공연이었다.



▲ 관악구협의회 유희·이상훈 자문위원

특히 안중근의 어머니의 편지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탄 맘 먹지 말고 죽으라'는 구절을 한 여배우가 독백으로 낭독할 때, 그리고 사형을 앞둔 안중근이 그 심경을 노래로 표현할 때 시민들의 눈가도 함께 촉촉해졌으며 공연이 끝나자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서울 관악구협의회 유희 자문위원은 "오늘 자녀를 동반한 자문위원님들도 꽤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통일이라는 주제에 훨씬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봉화는 평화통일로 가는 빛!' 남산봉화식

오후 6시, 해가 누엿해질 때쯤 남산봉화식이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비롯해 양우진 서울중구협의회장, 최창식 서울중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서울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통일기원문 낭독 △대북 고천식 △통일영상쇼(전국 69개 지역봉수대 점화식) △ 봉수대 점화식 순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가 시작되었고, 최창식 구청장의 개회선언, 양우진 서울중구협의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양우진 서울중구협의회장은 "8.15광복 70주년 전야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8천만 민족 모두가 행복한 평화통일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국에서 봉화를 다 함께 피어 올리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금은 70개에서 멈췄지만 머지않아 이 봉화가 남산 너머 백두산까지 시원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양우진 서울중구협의회장과 최창식 중구청장



▲ 박찬봉 사무처장



▲ 이기선 자문위원

박찬봉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이 행사는 중구청과 중구협의회가 23년간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해 전국 70개 지역협의회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청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참여했다"며 "봉화식에 앞서 전 지역협의회가 낭독한 봉화대축제 대북 통일메시지가 북한까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중구협의회장인 이기선 자문위원의 통일기원문 낭독이 있었다.





다음 순서는 서울중구협의회 지해경 고문의 선창으로 다 함께 외치는 '만세 삼창'이었다. 관람석은 물론 주변에 서서 구경하는 모든 시민들까지 우렁찬 목소리로, 통일을 기원하며 북녘땅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만세를 불렀다. 이어 '대북 고천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북 고천식'에서는 중구 및 민주평통 관계자 외에도 1945년 출생한 해방둥이 시민, 탈북민 대표, 경찰관 및 소방관, 학생 등이 참여해 새로운 통일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하늘에 고했다.



▲ 경기 수원시협의회



▲ 강원 삼척시협의회



▲ 경북 고령군협의회



▲ 충남 공주시협의회



▲ 충남 서산시협의회



▲ 충북 청주시협의회



▲ 충남 공주시협의회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채화식이 준비되는 동안, 무대 중앙에서는 통일기원 봉화 영상쇼가 화면으로 펼쳐졌다. 행사 당일 낮부터 남쪽 제주도를 시작으로 피어 오른 전국의 69개 봉수대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편집한 영상이었다. 태평성대를 알리는 봉화는 한 개를 피워야 하지만 이날 지역 봉화는 '다함께', '평화로', '통일로'라는 의미를 담았기에, 세 개의 봉화를 올렸다.

봉화 채화의 순간. 열 명의 '통일' 봉수군들이 무대 위로 입장해 준비된 채화봉을 화로에 넣고 불을 붙였다. 채화식에서는 중구 관할 15개 동 대표들이 옛 봉수군으로 분장해 안내를 도왔다. 드디어 70번째 봉화를 지필 불꽃이 채화됐고 채화봉을 든 봉수군들은 모두 함께 자리를 옮겨 남산 봉수대에 점화했다. 남산 하늘 높이 통일햇불이 치솟자 장내는 큰 함성과 박수소리로 뒤덮였다.



이날 남산에 피어오른 통일 봉화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활활 타올라  
평화 통일의 불꽃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NASA(미항공우주국)가 촬영한 한반도 야경. 사진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대한민국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며, 어둠 속에 고요하게 잠든 북한이 보인다. 백여 년 전 조국의 빛을 되찾기 위해(光復)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처럼 이 캄캄한 곳에 빛이 되어줄 청년들. 세계에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알릴 청년들이 통일공공외교대사를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대사 4기 활동 본격 시작

민주평통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5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대사 4기 발대식'이 8월 13일(목)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4기 통일공공외교대사 발대식에는 중·고·대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박찬봉 사무처장의 축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의 인사말,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및 지성호 나우 대표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배나 비행기, 자동차로도 갈 수 없는 북한이지만, 남북이 통일되면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연결되므로 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특히 북한의 경우 연간 20%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있으며, 주변국에게도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이 돼서 북한에 기업 투자가 늘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이는 남북한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기에 통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통일외교공공대사의 꿈을 품고 나아가기 위한 비전선포식이 진행됐다. 단체 티셔츠를 맞춰입은 청년들 모두 꿈 비행기에 소망을 적어 손에 든 채 단상 앞으로 나왔다.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대사 후보들은 일제히 비행기를 손에 들었고 박찬봉 사무처장과 박기태 단장이 “우리가!”를 외치자 청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일제히 답하며 비행기를 날렸다.



## 한국 홍보의 완성은 통일에서부터 시작돼

박기태 단장은 ‘통일 공공외교대사의 도전, 열정!’이라는 특강을 통해 “해외 자원봉사 청년들의 숫자가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통일 문제”라며 “통일분야 전문 강의도 들어보고 선배 대사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물어보면 외국인들에게 잘 답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최희주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북한에서 유일하게 불리는 노래가 ‘독도는 우리땅’인 것처럼 남북은 독도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독도를 통해 더 큰 미래인 통일대한민국을 보았다”고 말했다.



▲ 박기태 단장



▲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 지성호 나우 대표

이어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의 ‘통일준비와 글로벌통일 공공외교대사’ 특강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베트남의 냉전적 통일과 독일 및 예멘의 탈냉전적 통일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만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4개의 초강대국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며 국제 역학관계를 설명한 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의미있는 청년기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성호 나우 대표는 북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소개했다. 북한에서 부는 한류열풍과 장마당 등 북한 주민들의 최근 생활상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의에 집중했다. 또한 탈북 전 북한에서의 생활과 북송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많았다. 지성호 대표는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큰 활약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글로벌 통일외교공공대사'는 한국의 역사, 문화와 통일한국의 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주평통이 지난해부터 반크와 함께 통일공공외교대사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올해의 경우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과 12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80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 통일동아리 소속 민주평통 17기 청년 자문위원들 참여

이날 4기 발대식에는 전북대학교 통일동아리 '통일나라' 회원 다섯 명도 참여했다. 유형주 자문위원(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은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통일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통일에 대해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졌다”며 “통일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런 이익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통일공공외교대사로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래요!



**장선경(상해외국어대)** =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휴학하고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대사로 활동하면서 중국이나 유럽 친구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싶어요. 오늘 지성호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울었는데, 덕분에 지금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단 걸 새삼 깨달았어요. 북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단 생각도 들었고요.

**김슬기(단국대 광고홍보)** = 평소 국가브랜딩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해 왔는데, 외국인들이 'Korea'라고 하면 남한보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단 걸 알게 됐고, 통일을 이뤄야 이런 이미지가 바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센스있고 기발한 통일 광고도 만들어보고 싶고요.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걸 즐기는데 '통일'을 매개로 다가가면 더욱 의미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저도 통일을 찬성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바뀐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도 통일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이기훈(한국기술대 정보통신)** = 군대를 제대하고 올해 복학했는데, 사실 군대에서는 북한이 적으로 돼 있으니 군인 입장에서 보면 통일되기 어렵단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좀 더 마음을 열어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적대감과 불신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통일공감대가 더욱 넓어질 것 같아요.

**이익현(용인 수지고)** = 외교관을 꿈꾸다보니 통일공공외교대사에 대해 알게 됐어요. 통일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던 짐을 우리에게 떠넘길 것이란 생각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평소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희토류와 같은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해요. 또 통일을 이뤄서 육로로 수출할 수 있다면 훨씬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해요.



**김시현(평택 한국관광고) & 하다연(고양 정발중)** = 학교에서 반크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평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공공외교대사에 지원하게 됐어요. 한국이 통일된다면 북한과 남한의 관광지를 연계해 아름다운 한국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게 제 꿈이에요. (시현) 반크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홍보마케터가 되고 싶은데 북한과 한국의 우수성을 잘 혼합해서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유럽 여행도 한 번 해 보고 싶어요.(다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려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 건립 기공식이 7월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미 해병대 박물관에서 열렸다. 장진호 전투 참전 미군 생존 용사 20여 명과 미 해병대 헤리티지 재단 로버트 블랙먼 관장,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공식에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미 해병대의 장진호 전투 희생을 기억하고 한반도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과 함께 민주평통과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이 모금한 성금 15만 달러를 장진호 전투 참전 노병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의 유령 같은 인해전술과 명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장진호까지 진출한 미 해병대가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철수한 역사적인 전투이며, 미군은 이 전투에서 진주만 피습 다음으로 많은 4,500여 명의 병력을 잃었다. 기념비는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 17기 상임위원 워크숍 및 임명장 수여식 개최



민주평통은 7월 22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서울 흥은동 소재)에서 제17기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17기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격려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분과별 토론장으로 이동해 상건례와 함께 분과활동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7기 상임위원은 전문성과 직능대표성 등을 고려해 의장인 대통령이 500명을 임명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 골든벨 시도대회 우승학생 러시아 연해주 현장학습 실시



▲ 이상설 유허비 현화 준비





▲ 안중근의사 단지동맹비 묵념

학생들이 그린 탐방후기▶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5 역사통일골든벨 시도대회 우승자들이 8월 11일~15일 러시아 연해주로 '청소년 해외 역사통일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중학생, 고등학생 각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된 현장학습단은 항일민족지사들의 집결지이자 국외 독립운동의 집결지인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을 시작으로 안중근의사 단지동맹비, 하산전투 기념비, 고려인문화센터, 고려사범 전문학교, 이상설 유해비, 발해성 등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특히 이번 현장학습에는 탈북 대학생들이 교사로 동행해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과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

## 하와이협의회 '코리언 페스티벌' 에서 통일공감대 넓혀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7월 11일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 14회 코리언 페스티벌에 참가해 통일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호놀룰루 바닷가 매직 아일랜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하와이협의회는 축제장을 찾은 많은 한인동포 및 지역 주민, 여행객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코리언 페스티벌 행사에서는 아리랑 노래에 맞춘 로컬 청소년들의 신나는 춤과 농악공연, 태권도 시범, 전통혼례, 김치 먹기대회 등이 펼쳐졌으며 데이비드 이계 주지사와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을 비롯해 많은 인파가 축제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 ● 제17기 민주평통 출범회의 ●

지난 7월 1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이어 전국적으로 지역별 출범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17월 15일 영등포구협의회 출범식







8월 5일 시카고협의회 출범식



7월 28일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출범식



7월 23일 강원지역회의 출범식

7월 16일 대구서구협의회 출범식



7월 14일 부천시협의회 출범식



7월 14일 속초시협의회 출범식



7월 17일 홍천군협의회 출범식





▲ 경기 동두천시협의회



▲ 경기 고양시협의회

경기 동두천시협의회(회장 안민규)는 7월 9일 보영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우신구)도 10일 도래울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 충남 보령시협의회



▲ 경북 예천군협의회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13일 대천여자고등학교에서,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예천여자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 경북 상주시협의회

▼ 경기 화성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4일 상주여중 학생들과 함께 판문점 및 DMZ 일원을 견학했으며,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15일 화성시 반월중학교에서 '2015년 청소년 1일 통일교실'을,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중호)는 충주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각각 개최했다.



▶ 충북 충주시협의회





◀ 전남 목포시협의회

▼ 경남 통영시협의회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는 20일 목포덕인고 학생들과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으며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책)는 27일 통제영학당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대구 서구협의회

▲ 강원 지역회의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종석)는 7월 4~5일 성주군 일대에서 '어깨동무 멘티-멘토 여름캠프'를 개최했으며, 강원 지역회의(부의장 조동용)는 29~30일 고성 아이파크콘도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 '2014 강원 어깨동무 여름방학 캠프'를 열었다.



▲ 경기 지역회의



▲ 대구 수성구협의회

경기 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 여성분과위원회는 1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R&DB센터에서 '북한이탈여성 행복대학 졸업식'을 개최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17일 수성경찰서에서 협의회장 취임식 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을 북한이탈 주민에게 전달했다.





▲ 전북 정읍시협의회



▲ 충북 지역회의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유남영)는 24일 17기 출범식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충북 지역회의(부회장 한상길)는 26일 '북한이탈주민 복달인임 보양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 지역 봉사활동



▲ 제주 제주시협의회



▲ 전남 진도군협의회



▲ 경남 합천군협의회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신방식 회장 등 16기 위원들이 모은 성금을 기탁했다.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는 7일 진도군노인복지관 점심 배식활동으로 17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 배식봉사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활동으로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강원 동해시협의회 ▶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22일 오전 합천군을 찾아 '합천사랑 아이사랑' 정기 후원 신청서를 전달했으며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28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홍보했다.

**통일문화 확산**



◀ 충남 서산시협의회

▼ 경기 용인시협의회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7월 7일 용인시 사회지도층 인사 80여 명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판문점),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제3땅굴'을 견학했으며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20일 시청앞 1호광장에서 출근시간을 이용한 광복70주년 '태극기 사랑 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 충남 홍성군협의회



▲ 경남 함양군협의회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7월 7일 홍성군청에서 '주부통일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으며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는 30일 함양군 산삼축제 첫날 '통일기원 소망등 달기' 행사를 열었다.





'칼 같은 산들은 얹히고설키었는데, 소나무와 전나무에 달이 비치고  
비단결 같은 냇물은 맑고 찬란한데 풀과 나무에는 연기가 잠겼다'

십사리 기세가 꺾이지 않는 도심의 열기를 피해, 절박한 심정으로 짐을 꾸리며 달이 비치고,  
비단결 같은 강물이 흐르는 안개 짙은 자연을 상상했다. 이왕이면, 쏟아지는 별빛과 자랑할 만한  
이야깃거리까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강원도 영월 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린 생명이 눈을 감아 하늘의 별이 된 고장, 볼거리가 많아 생각할 거리도 많은 신록을 강물과 함께  
사이좋게 거닐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들썩이던 가슴을 다독였다.  
2015년 강원도 영월의 마지막 여름 풍경이다.

..... 그래도 외롭지 않아 다행이다, '장릉' .....

고작해야 열 너댓살이었다. 요즘 같았다면 한창 사춘기로 부모 속 깨나 상하게 했을 나이. 물론 걸음마를 떼  
기도 전부터 왕도를 배운 터라 생각보다야 초연한 모습이었을 테지만, 자신을 위해 죽어간 귀한 생명들을 뒤  
로 한 채 '칼 같이 얹히고설킨' 산을 넘고, 고개를 지나 유배지로 향하는 그 마음이야 오죽했을까. 분하고, 두렵  
고, 서글펐으리라.





| 울창한 소나무가 감싸고 있는 장릉(단종의 묘)

화려했던 조선왕조 역사 상 가장 비운 했던 왕을 꼽자면 단연 단종일 것이다. 열두 살에 왕위에 올라 숙부였던 수양대군(훗날 세조)에 의해 고작 열일곱 살에 눈을 감기까지 참 기구한 인생을 살다 간 이 어린 왕의 한이 구구절절 남아 있는 곳이 이곳 영월이다. 때문에, 영월 곳곳을 거닐다 보면 어렵지 않게 단종의 애사와 마주할 수 있다.

그중 장릉은 '삼죽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옮겨 모셨다는 흉신 엄흥도와 단종의 혼이 모여져 있는 곳.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덕분인지 찾는 이가 적지 않은 영월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왕릉 대부분이 서울 또는 경기 지역 평지에 군(群)을 이뤄 조성된 것에 비해, 단종의 묘는 언덕 위 홀로 자리하고 있다. 무신상이나 석호 등 조선왕릉 고유의 화려한 조형물은 없지만, 대신 울창한 소나무가 봉분 주변을 감싼 채 허리를 숙이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무엇보다 사철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 송림에 터를 잡은 산새와 오고가는 관광객들의 발길 덕에 홀로 있지만, 그나마 덜 외롭겠다 싶어 마음이 놓인다.

## 육지이되 섬이었던 유배지, '청령포'

단종의 흔적을 보기위해 영월을 찾았다면 장릉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한 곳 있다. 청령포가 그곳이다. 후에 홍수로 인해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유배생활을 했다는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 육육봉이라는 험준한 암벽이 버티고 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육지이되, 섬인 곳이다. 지금도 선착장에서 수시로 운행되는 작은 배에 올라 바닥이 보일만큼 맑은 강물을 5분 여 정도 헤치며 나아가야 닿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자갈로 이루어진 강변에 내려 조금 걸어 오르면 가장 먼저 제법 속 깊은 송림이 맞이해준다.



| 청령포로 들어가는 선착장



지금으로 보자면 유배지라기보다 휴양림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정돈된 모습이지만, 어린나이에 궁에서 쫓겨나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단종이 보기엔 감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청령포 내에는 당시 단종이 기거했던 단종어소를 비롯해 한양에 두고 온 왕비를 그리워하며 들을 쌓았다는 망향탑이 있다. 또 송림 안쪽으로 단종의 유배 당시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라 불리는 600년 수령의 흰칠한 소나무도 볼 수 있다.



단종의 유배지

600년 수령의 관음송



## .....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르고 달도록, '선암마을'과 '선돌' .....

유배지조차 휴양지로 보일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뽐내는 영월 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늘 자신도 모르게 동행하게 되는 일행이 생긴다. 동강과 서강이다. 동강은 정선과 평창 일대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선읍내를 지나 영월 일대에 이르러 동남천 물줄기와 합쳐진 강물을 뜻하며, 서강은 말 그대로 서쪽의 강이란 뜻으로 본래 하천명은 평창강이다.

한반도 지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선암마을



서강의 푸른 물과 층암절벽이 어우러진 선돌

이 서강이 청령포를 휘감기 전에 지나가는 곳이 선암마을인데, 흔히 한반도지형으로 알려진 곳이다. 바다 대신 강물이 감싼 것을 제외하고는 빠져나온 꼬리까지 영락없이 한반도 지형을 닮아 있는 곳으로 전망대 부근에 오르면 만발한 무궁화 꽃밭과 어우러진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선암마을의 전경을 보고 있자면, 자신도 모르사이 애국가 한 소절을 흥얼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서강이 완성한 그림 같은 풍광에는 선들 역시 빠질 수 없다. 선암마을의 전망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선들은 서강의 푸른 물과 총암절벽이 어우러져 한 편의 한국화를 보는 기분을 준다하여 '신선암'이라고도 불린다. 각종 예능과 영화로 소개되어 익히 알고 있다하여도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은 감동적이다. 칼로 쪼개낸 듯 보이는 입석과 입석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강물, 기암과 절벽이 어우러져 머무는 내내 보는 눈과 가슴 모두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든다.

## ..... 잊지 말아야 할 귀한 목숨들, '금강정'과 '충혼탑' .....

| 충혼탑



옛날만 해도 험준한 산과 고개가 많아 찾는 길손이 적었던 지역이지만, 요즘은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한곳이 됐다. 그렇다보니 어딜 가나 적지 않은 인파와 마주하게 되는데, 조금 한적하게 영월의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조선시대 지어졌다는 금강정을 추천한다. 서강과 달리 유속이 빠른 동강을 앞에 둔 정자 주변으로는 단종과 관련한 유적지가 위치해 있으며, 정자의 현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또한 이 금강정에서 지척으로는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도 위치해 있으니 가능한 발길을 옮겨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단명한 어린 임금의 목숨만큼이나 피 흘리며 이 땅을 지켜낸 내 형제들의 목숨 역시 귀했었음을 기억하자.

## .....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마로 천문대' .....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한 낮의 햇살을 피해 나무 그늘로만 발길을 재촉했다면 낮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찾아와주는 밤의 존재가 새삼 반갑기만 하다. 영월의 밤은 짙어진 어둠 사이로 하나둘 등불을 밝히는 작은 빛들이 반짝일 때 시작된다. 청명한 공기 덕에 유난히 별자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강원도. 그 안에서도 영월의 밤은 더욱 특별하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천문대가 있기 때문이다.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이름을 지닌 천문대에 오르면, 문득 학창 시절에 읽었던 알폰소 도데의 '별'이라던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 등이 차례대로 떠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청춘'이란 단어와 마주하게 된다. 첫사랑에 설레고, 밤 잠 이루지 못하며 별 하나에도 이름을 붙여 붙렸던 그 시절. 사실 지났다고 생각했던 청춘이 생각보다 더 가깝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을 하며 울고, 웃고, 감탄하고 기뻐했다면, 그래서 충분히 즐겁다 생각했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심장은 덜 딱딱해진 것이라 위안한다. 그래서 이 밤 '별을 다 세지 못한' 우리 모두는 아직 청춘 일지도 모른다.

| 천문대에서 바라다 본 영월의 모습



## 한 낮의 열기에 지쳤다면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찰옥수수과 감자떡, 송어회, 곤드레밥, 메밀전병 ... 영월하면 떠오르는 먹거리를 손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뜨거운 한 낮의 열기와 신경전을 벌였다면, 진한 콩국물이 고소한 콩국수나 쫄깃한 면발이 착착 감기는 물냉면도 좋은 선택. 물론 강원도를 대표하는 간식거리를 먹을 여지는 따로 남겨두는 게 현명하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 전 세계 공연의 메카, 통일한국 인사동

이택중





통일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뮤지컬하면 한국이잖아!!

그렇지. 남북한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독특한 공연문화가 생겨났고,  
요즘은 공연하면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엔드보다 한국의  
인사동이지.



안되겠어! 이 역사적인 순간을  
SNS에 올려야지. 자 치즈!!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북한의 강원도 음식인 한천냉채는 원래 한천을 찬물에 불구었다(불렀다)가 찢어 놓고 오이도 채썰어 깨소금과 다진 파, 다진 마늘, 사탕가루, 식초, 후춧가루를 넣고 참기름을 둘러 따로 무친 다음, 가늘게 채 썬 소고기 역시 양념을 두고 볶은 후 한천무침과 오이무침, 소고기볶음을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낸 음식이다. 여기서는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소고기를 닭고기로 대신하고 원재료의 맛을 살려 새롭게 만들어 보았다.

### 요리재료

실한천 20g, 닭안심 20g, 파프리카 1/2개, 당근 1/2개 오이 1/2개,  
소금&후추 약간씩  
소스 : 겨자가루 3큰술, 식초 6큰술, 설탕 3큰술, 소금 반큰술,  
간장 한큰술



### 요리방법



1 실한천은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볼에 담아 물에 10분간 불린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다.



2 닭안심은 15분간 삶아 건져낸 후 결대로 찢은 다음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다.



3 파프리카와 당근, 오이는 채 썰어 준비한다.



4 볼에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섞어 소스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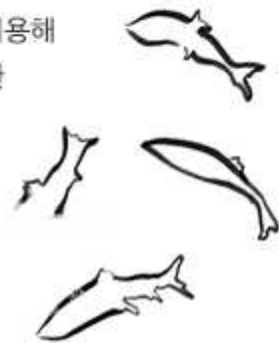
5 그릇에 야채와 닭안심을 돌려 담고 중앙에 실한천을 올린 후 소스와 같이 곁들여 상에 낸다.



요리연구가\_ 나유신

### 남녀노소 건강식으로 좋은 한천

북한의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한천은 주로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만든다. 우무라고도 불리는데 물에 잘 녹고 투명하며 말랑말랑하고 다양한 음식에 두루 쓰인다. 남한에서 한천은 젤리나 양갱의 재료로도 쓰고 있고 크기에 맞게 잘라 무침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열량이 낮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전혀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이용된다. 강원도 지방 음식은 바닷가가 인접해 있는 특성상 북어, 편포 등 말려 먹는 음식과 젓갈류가 발전해 왔다.





# 17기 출범 축하 이벤트

## 당선작



### 강가딘

17기 민주평통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17기 자문위원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활동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분단 70년, 이제 고령이 되신 그분들에게 가족과 고향의 소식 전해 들을 수 있게 배려해주시다면 남북 화해무드와 통일분위기 조성 그리고 단일민족 공동체로서의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건전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가 컸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산가족상봉이 그 좋은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통일로 가기 위한 첩경, 그리고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평화분위기 정착과 교류의 증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생각되었던 남북 분위기가 혈육 상봉의 뜨거운 눈물로 해빙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싶고요. 17기 민주평통이 그 첨병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토레스

먼저 17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께 드리는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더욱 활성화 시켜주시시오! 또한 국민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라며 국민화합과 소통의 다리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민주평통 17기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유랑

안녕하세요!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민주평통의 슬로건으로 정해진 '희망의 통일시대, 8천만의 행복시대'라는 문구처럼 이제 한반도가 하나 되어 이루는 통일의 시대도 머지않았음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분단국가로서 앞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주평통이 큰 힘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온 힘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분명히 통일은 목전에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계획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17기 민주평통의 활동, 그리고 포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마음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17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 페트라

함께하는 커다란 미래를 향하여! 행복과 더불어 대륙을 향해 뻗어 나갈 대박 대한민국을 바라며! 17기 출범 화이팅!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민주평통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로이 출범한 17기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요즘 TV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조금 친숙해지자 생각과 편견이 완화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깊숙이 실감할 수 있는 참여방법을 제시하고 우리들의 미래이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드시 교육해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라일구

17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이자 이산가족이신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남북 체육교류야 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침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에서 보았듯 스포츠만큼 온 국민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매개체도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남북 단일팀으로 세계 대회에 나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류조차 뜸한 지금의 답보상태에 무언가 점진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체육교류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해야 문화 학술분야 그리고 경제적 교류 등도 얽힌 실타래처럼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7기 민주평통에서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찰카 통일공감

## 통일, 북한관련 인증샷 보내기

우리 생활 속에서 통일 또는 북한과 관련된 사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통일의 모습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요^^



보고싶은  
이산가족 사진



여행지에서 본  
통일



응모기간	2015. 08.17 ~ 2015.09.09
응모방법	하단에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20명
시상내역	스타벅스 카페모카
당첨자발표	9월 셋째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북한친구들아 같이 휴가가자'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smincandy@daum.net	자스민
2	**m02053@naver.com	쭈최
3	**stoption2@hanmail.net	페르난도
4	**ster@naver.com	대한민국 사랑해요
5	**monism@naver.com	아몬드



###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ng0856@naver.com
2	**es012@naver.com
3	**nanajuice1228@hanmail.net
4	**opipa33@hanmail.net
5	**j2696@hanmail.net
6	**sporter@hanmail.net
7	**tistlyj@hanmail.net
8	**rldbgn@hanmail.net
9	**jfosl@naver.com
10	**s011011@naver.com
11	**okhwa79@hanmail.net



12	**vehm84@naver.com
13	**utniksweet@naver.com
14	**ngkrim@hotmail.com
15	**nesonu@gmail.com
16	**fbfbb@naver.com
17	**utelove2001@hanmail.net
18	**rahkellybom@gmail.com
19	**kim1950@hanmail.net
20	**o4393@naver.com
21	**hwamail@hanmail.net
22	**ereyetg@naver.com
23	**hlove1990@naver.com
24	**kslal@hanmail.net
25	**lsasss@naver.com
26	**foodstyle@naver.com
27	**tato7809@naver.com
28	**dnjs5617@naver.com
29	**ycalltax@hanmail.net
30	**-mint@nate.com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